

**▶ 다음 질문으로 서로의 마음문을 열어보세요.**

Q. 최근 제일 행복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찬 200장) / 기대 / 우리 하나되어 / 우리 함께 기뻐해

▶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모임기도 (셀리더 또는 말은 사람이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27절 | 개역개정)

▶ 금주 말씀 되새기기 /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1.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창세기 1:26-27).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 관계적 존재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단독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시고, 관계 안에서 존재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관계 안에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존재는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열린 관계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2. 서구적 인간 이해의 한계와 새로운 관계적 인간론

현대 사회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인간은 주체성, 독립성, 자유성, 이성, 개별성, 동일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는 서구 철학이 수천 년간 그려온 인간상이며, 프랭크 시나트라가 “My Way”라는 노래가 그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병들게 했습니다. 전쟁, 환경파괴, 경쟁으로 점철된 사회는 이런 개인주의적 인간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왜곡된 인간 이해를 넘어, 새로운 인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3.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존재 - ‘되어지는 존재’

20세기 말부터 케너스 거겐(Kenneth Gergen) 같은 학자들이 등장하여 인간을 ‘관계 속에서 되어가는 존재(a becoming Being)’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정해진 자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아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부터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영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세하게 배려하는 사람”, “따뜻한 리더”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노력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들은 말과 격려를 통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롭게 되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4. 공동으로 형성되는 정체성과 연결된 존재로서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함께 형성되는 것입니다(Co-constructed). 베드로도 처음엔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따로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동물, 식물, 자연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너”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바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립된 삶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외연을 넓혀야 합니다. 교회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관심과 신앙도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야 합니다.

▶ 아래의 질문으로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을 가지세요!

1.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내가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성품은 무엇인가요? 혹은 닮고 싶은 성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품 예시들

사랑(Love), 자비(Mercy), 인내(Patience), 공의(Justice), 신실함(Faithfulness), 겸손(Humility), 진리(Truth), 화평(Peace), 창조성(Creativity), 용서(Forgiveness) 헌신(Commitment), 관계맺음(Relationality)

2. 창1:26-27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있나요?

3. 이번에 진행되는 ‘성문 밖 프로젝트’ 중에서 어떤 것에 가장 마음이 동하나요? 그 이유도 함께 나눠보시고, 우리 셀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그려보세요!

- 1)동탄경찰서 부활절 기념예배 2)부활절 전도 3)세계장애인의 날 금요성령집회
4)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동행 5)미안마 어린이들과 동행

▶ 나누었던 내용과 더불어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1.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곧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며,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사랑과 존중, 배려로 관계를 맺어가도록 기도합니다.

2.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변화되도록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법칙’ 시리즈 말씀을 통해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존재’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 열매 맺도록 기도합니다.

▶ 지금은 ‘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면 좋습니다.)

-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 셀 리더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